

外羅老島地域의 衣生活

權 瑛 淑 · 李 珠 英*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시간강사*

Dressing Practices of Residents at the *Woinarodo* Region

Young-Suk Kwon · Joo-Young Le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Pukyong National Univ.*

(2002. 3. 5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dressing practices at the *Woinarodo* region in terms of ordinary and ritual clothes.

Men wore *Baji*(trousers) and *Jeokori*(jackets) as their plain clothes and sometimes *Jangsam* and *Durumaki*(topcoat).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y, men wore Western-style clothes. For women, it was basic to wear *Chima*(skirts) and *Jeokori*. And they preferred *Momppe* rather when in Japanese rule. In arrangements for their head, men put on *gat*, and had their hair cut during Japanese rule. Women laid a bundle of their braided hairs on the head or braided their hair, while married women did their hair up in a chignon during the ruling period. People of the region put on straw and leather shoes, and then rubber ones since the late 1930s.

Hand weaving was a major means of living for women at the region. Ramie, hemp and cotton were mainly weaved by hand. Starching was applied mainly to ramie and cotton. Glues for starching were made of raw rices, cooked rices, wheat flour or *gloiopeltis tenax*.

For ritual clothes, especially in wedding, bridegrooms arranged themselves with *Samokwandae* and then put on *Baji*, *Jeokori*, *Durumaki* and *Danryung*. But they put on Western-style dresses as the liners of *Danryung*, and wear *Nambawi* rather than the *Samo* after Korean independence from Japanese rule. Bridges wore *Chima*, *Jeokori* and *Wonsam*, and *Chokdoori* and covered their face with *Hansam*. *Wonsam* did not be worn any longer after Korean independence from the rule. Shrouds for funeral ceremony were manufactured with silks, cotton and hemp, when the chief mourner wore hempen hoods and funeral robes, while women, *Chima*, made of hemp, and any type of *Jeokori*.

Key Words : plain clothes(평상복), ritual clothes(의례복), hand weaving(길쌈), starching(푸세)

I. 서 언

본 연구는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고흥반도 앞 바다에 있는 섬인 外羅老島의 의생활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외나로도도는 전형적인 도서지역으로서 면적이 2천8백22만㎡이며 인구가 3천5백명으로 비교적 큰 섬이다. 羅老島라는 지명은 비단 羅자와 늙을 老자가 합쳐져 흰옷, 즉 빨래란 의미로서 해안의 화장암이 하얗게 빛이 바래 빨래를 널어놓은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고, 과거 나라에 바칠 말을 키우는 목장이 있어 나라섬이라고 불린 데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¹⁾.

외나로도도는 임진왜란 이전에는 馬場이었으나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사는 住居地가 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진 고립된 지역인 탓에 유배지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제시대 이후부터는 해상교통이 활발해지고 다른 지역 및 일본과의 거래도 많아졌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곳의 수산물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다.

지금까지 외나로도도를 포함한 전라도 도서지역이나 해안지역의 의생활을 독자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전라도 내륙지역의 의생활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1986년에 펴낸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²⁾와 지춘상 외 19인이 1998년에 펴낸 《남도민속학 개설》³⁾에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특색있는 전북의 전주와 전남의 나주지방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있다.

이와같이 도서지역의 의생활에 대한 실증연구가 드문 상태에서 개발로 인하여 주민들의 고유의 생활상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게 되는데, 외나로도지역도 하반마을을 포함한 마치산자락 1백50만평에 국내 최초로 우주센타가 건설될 계획이 수립되어 주민⁴⁾들의 이주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도서지역의 의생활에 대한 실증고찰의 일환으로 하반마을을 포함한 외나로도지역 고유의 의생활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제시대와 해방이후에 외나로도지역에서 착용되었던 평상복과 출생, 혼례, 상례시의 의례복을 살펴보고, 이 지역 고유의 길쌈풍속, 전통 푸세법과 세탁법 등에 대해서도 알아 봄으로써 외나로도지역의 전반적인 의생활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타 지역과의 비교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비교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자료조사 기간 및 지역

자료조사는 2001년 6월, 7월에 외나로도지역을 중심으로 두 차례 실시하였다.

2. 자료수집 방법 및 제보자 인적사항

자료수집 방법은 대상 지역 주민에 대한 개별 방문 면담방식을 사용했다. 면담과정은 자료 제보자의 진술을 녹음과 기록으로 채록하는 동시에 복식유물이나 사진자료를 실측하거나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제보자는 외나로도지역 주민 15명이며 인적사항은 <표 1>과 같다. 제보자 15명은 남녀의 의생활문화를 모두 기억하고 있거나 유물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로 선별되었으며, 특히 남자복에 대해서는 남자복을 제작한 경험이 있는 여자들의 진술을 주로 하였다.

<표 1> 제보자의 인적사항

NO	성명	성별	연령	출생년도	결혼년도(연령)	제보 내용	길쌈경험
1	박달엽	女	93	1909	1925(17)	의생활 일반, 두식, 길쌈, 푸새, 염색	有
2	김창옥	男	86	1916	1932(17)	의생활 일반	無
3	송팔래	女	85	1917	1934(18)	의생활 일반, 길쌈	有
4	홍명엽	女	84	1918	1935(18)	의생활 일반, 길쌈, 수의	有
5	김공래	女	83	1919	1937(19)	의생활 일반, 길쌈, 푸새	有
6	박선임	女	82	1920	1936(17)	의생활 일반, 길쌈	有
7	김상금	女	82	1920	1936(17)	의생활 일반, 길쌈	有
8	김금녀	女	81	1921	1936(16)	길쌈, 해초류, 과일류, 젓갈	有
9	명귀래	女	80	1922	1939(18)	의생활 일반, 길쌈	有
10	김달심	女	78	1924	1943(20)	의생활 일반, 길쌈, 푸새	有
11	김명래	女	73	1929	1947(19)	의생활 일반, 길쌈, 푸새	有
12	김소아	女	73	1929	1945(17)	길쌈, 호분, 해초류, 과일류, 젓갈	有
13	김미엽	女	73	1929	1947(19)	길쌈, 명석짜기, 해초류, 과일류, 젓갈	有
14	김영임	女	67	1935	1963(19)	길쌈	有
15	김소임	女	61	1941	1959(19)	의생활 일반, 길쌈, 푸새	有

Ⅲ. 일반 의생활

1. 평상복

1) 의복

(1) 남자옷

남자옷의 구성은 메리야스로 된 내의가 나오기 이전에는 위에는 속적삼이나 등지개를 입고 아래에는 속중우나 고쟁이를 입었으며 그 위에 바지, 저고리를 기본으로 입었다. 겨울에는 장삼이나 동방우를 덧입기도 했으며 외출시에는 두루마기를 입었다.

일제시대에는 바지와 저고리 대신 검은색 물을 들인 무명[명배]으로 양복을 지어 입었으며, 상투 머리에 탕건과 갓을 쓰는 대신 머리를 깎고 중절모나 털모자를 썼다.

① 바지·저고리

남자들은 계절에 따라 홑, 겹, 솜으로 만든 바지와 저고리를 입었다.

여름에는 주로 모시나 삼베[마포]로 홑으로 만든 바지와 적삼을 입었다. 모시바지 안에는 허벅지 중간 길이 정도의 모시로 만든 속바지를 입었으며, 모시바지를 입을 때는 시원함을 위하여 대님을 매

지 않았다. 모시적삼 안에는 모시등지개[등지기]를 입고 대로 만든 토시를 착용하여 통풍과 시원함을 더하였다. 등지개는 속저고리로서 홑으로 지었으며 깃, 싹, 동정이 없는 반소매 형태이다. 이 지역에서는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등지개, 즉 속저고리를 마고자라 부르고 있어 독특하다. 등지개는 일명 등거리, 등반이라고도 하며⁵⁾, 소매가 없는 옷옷의 한 가지로서 땀받이로 속에 입는 것과 치레나 추위막이로 겉에 입는 것⁶⁾, 그리고 하층민의 노동복으로 겉에 입는 것⁷⁾ 등이 있다.

봄, 가을, 겨울에는 주로 무명으로 만든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으며, 봄, 가을에는 겹으로 지었고 겨울에는 겹으로 깃거나 솜을 넣어 지었는데 솜옷의 경우 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군데군데 시쳐서 입었다. 속옷은 주로 무명으로 지었으며 위에는 속적삼이나 등지개를 입고 아래에는 고쟁이를 입었다.

노동할 때는 주로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 형태의 땅중우[땅뚱우]를 입었다. 즉 땅중우는 짧은 잠방이 바지로서 길이가 종아리나 정강이 정도에 이르러 바지통이 좁으며 바지의 앞·뒤 구분이 없는 형태이다⁸⁾).

이 지역에서는 깃과 동정이 있으며 길이가 허리 밑까지 내려오는 저고리를 동방우라고 했다. 저고리에 대한 전라남도의 방언을 보면 나주의 동방

애¹⁰⁾, 강진, 보성, 화순, 여수의 돛방에 또는 돛방우¹¹⁾라는 용어가 있는데 돛방우와 유사하다. 저고리의 부위별 명칭은 오늘날과 같으나 다만 길을 '질'이라고 했다. 또한 사복바지의 부위별 명칭에 대해 허리를 '말', 마루폭을 '온폭', 큰사복을 '큰다리', 작은사복을 '작은다리', 허리끈을 '헐뚜'라고 했다. 온폭, 큰다리, 작은다리와 같은 명칭은 강원도 춘천, 춘성지역에서도 사용되었다¹²⁾. 허리끈은 한번 두르고 고리를 내어 앞에서 묶었고 대님은 두번 두르고 고리를 내어 묶었다.

② 장삼(長衫)

장삼은 깃과 동정이 없는 형태로서 그 모양이 오늘날 남자들이 입는 마고자와 비슷한데 단지 매우 크고 길이가 길다. 장삼은 겨울철에만 입었는데 자주 입지는 않았고 부유한 집안에서는 솜을 넣어 누벼 입기도 했다.

③ 두루마기

두루마기[두루막]는 옷옷으로서 외출할 때 착용하였으며 보통 1인당 3~4벌 정도는 갖추었다고 한다. 여름에는 8升 정도의 가늘고 좋은 모시로 만든 홑두루마기를 입었고 봄, 가을, 겨울에는 무명으로 만든 겹두루마기를 입었다.

일제시대에는 두루마기의 소재로 겉감으로는 광목과 옥양목이, 안감으로는 다후다 등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양복지가 사용되기도 했다. 두루마기는 집에서 지어 입기도 하고 양복점에서 맞추어 입기도 했으며 색상은 흰색, 옥색, 감색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2) 여자옷

여자옷의 구성은 속옷으로 속곳, 가래고쟁이, 단속곳, 속치마 등을 입고 그 위에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입었으며 치마 위에는 각띠나 헐뚜를 들렀다. 일제시대에는 치마 대신 몸빼를 입었으며 머리는 엷은머리 대신 쪽진머리를 했다.

① 치마·저고리

여자들은 계절에 따라 홑, 겹, 솜으로 만든 치마

와 저고리를 입었다. 여름에는 주로 모시와 삼베를 사용하여 홑으로 지었고, 봄, 가을에는 무명을 사용하여 겹으로 지었으며, 겨울에는 무명이나 명주를 사용하여 겹으로 짓거나 솜을 넣어 지었는데 추우면 남편의 저고리를 꺼입기도 했다. 옛날 할머니들은 보온을 위해 손목에 솜토시를 착용하였다고 한다.

일제시대에는 겉감은 명주, 안감은 얇은 당목으로 만든 저고리도 착용하였는데 이를 '기민저고리'라고 하였다. 당시에는 심감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안·겉감으로 모두 명주를 사용하면 옷에 힘이 없어 옷맵시가 없었으므로 이처럼 겉감은 명주, 안감은 얇은 당목으로 만들어 옷에 뻣뻣함을 주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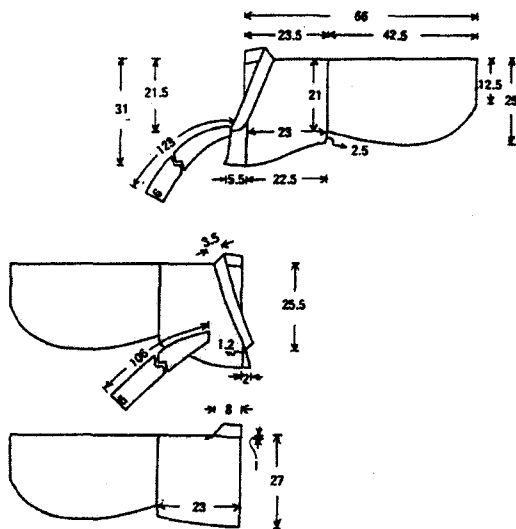
치마는 풀치마와 통치마를 입었는데 풀치마를 이 지역에서 '가닥치마'라고 했다. 이 지역의 여인들은 원래 풀치마를 입었으나 일제시대에는 풀치마와 함께 통치마도 입었다고 한다. 풀치마는 옷감 7~8폭으로 만들어 왼쪽으로 돌려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오른쪽으로 돌려 입는 사람도 있었다. 통치마는 풀치마보다 옷감이 두 폭 정도 덜 소요된다. 치마를 입을 때 치마말기는 가슴에 두르고 각띠나 헐뚜는 가슴아래에 돌려 치마가 흘러 내리는 것을 막고 활동에 편의를 도모했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는 1980년 경부터 풀치마의 말기에 끈을 달아 어깨에 걸쳐 입음으로써 치마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했는데 오른쪽에만 끈이 달려 있어 독특하다.

일제시대에는 치마·저고리감으로 전통 옷감인 무명, 명주, 모시, 삼베 등이 주로 사용되는 가운데 옥양목, 당목, 인조, 양나사, 숙고사, 갑사, 고사, 나야가라 등도 사용되었으며, 이 중 양나사는 당시 제일 좋은 옷감으로서 노랑색, 빨강색, 파랑색 등이 있었다.

일제시대에는 옷감이 귀해 어른들의 옷을 뜯어 아이들의 옷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한 예로 김소아 할머니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감색 두루마기를 뜯어 치마를 만들어 주셨는데 입으면 태가 나서 항상 즐겨 입으셨다고 한다. 여자 아이들의 저고리 고름은 푸른색, 검정색 등으로 만들어 돌띠처럼 돌려 매기도 했다.

한편 가정형편이 어려워 설날이 되어도 새 옷을 준비할 수 없었던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땡기 하나 정도로 설빔을 대신했다고 한다.

명귀례 할머니께서 1980년대에 입으셨던 저고리를 가지고 계셨는데 저고리는 세 겹으로 겹감은 단 종류이고 안감은 주아사이며 안·겹감 사이에 주아사 심감이 들어 있다. [그림 1]은 저고리의 실측도이다.



[그림 1] 1980년대 여자 저고리 실측도

② 마고자

마고자는 저고리 위에 입은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뒹저고리’라고 했다. 형태는 깃과 동정 없이 맞여미게 되어 있다.

③ 몸뻘

여자들은 일제시대에 일본의 탄압정책에 의하여 전통적인 치마를 입을 수 없었고 대용으로 일본식 바지인 몸뻘을 입기 시작했다. 이후 몸뻘은 간편할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방한용으로도 적당했고 또 밑위가 길어서 가슴 밑까지 올려 입으면 옆구리 살도 보이지 않아 여자들에게 크게 유행되었고,¹³⁾ 오늘날까지도 여자들의 활동복으로 널리 착용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1940년 경부터 몸뻘을 입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치마의 폭 증앙을 꿰매어 바지처럼 두 다리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입었으나 점차 통은 넓고 발목부위는 좁은 형태의 몸뻘이 유행되었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몸뻘은 몸뻘이라고도 하며 재래식 속옷인 단속곳의 바지부리에 고무줄을 넣어 몸뻘 대용으로 입기도 했다¹⁴⁾.

④ 속옷

재래식 속옷으로는 속곳, 가래고쟁이, 단속곳, 속치마 등이 있다. 착장순서는 속곳→가래고쟁이→단속곳→속치마 순이며 생리 중에는 속곳 안에 무명으로 만든 기저귀를 하고 끈으로 묶었다고 한다.

고쟁이는 무명, 광목, 당목 등으로 만들었으며 가래고쟁이는 앞·뒤가 모두 터진 것이고 십자고쟁이와 풍차고쟁이[풍채고쟁이]는 뒤만 터진 것이다. 단속곳은 바지통이 넓은 것으로 주로 인조로 만들었으며 바지부리가 넓어 일할 때 불편하였으므로 대넒으로 묶었는데 잘 때도 묶고 잤다고 한다.

평상시에는 속옷을 모두 갖추어 입지 않았고 그냥 속곳에 대넒을 묶고 치마를 입었으며, 외출할 때는 속곳 위에 가래고쟁이와 단속곳을 갖추어 입고 치마를 입었다. 그러나 과거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남녀가 모두 속옷으로 무명으로 만든 고쟁이만 입었으며 심지어 고쟁이도 벗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속옷의 재료로는 주로 무명이 사용되었고 일제시대에는 무명 외에 광목, 당목, 인조 등도 사용되었다. 간혹 부잣집에서는 시집갈 때 양단으로 만든 단속곳을 입기도 했다.

⑤ 허리띠

허리띠를 이 지역에서는 ‘각띠(각두, 광띠)’와 ‘혈뚜’라고 했다. 각띠와 혈뚜는 여자들이 치마를 입은 뒤 허리에 매는 일종의 허리띠로서 긴치마의 자락을 감싸 여미고 허리띠를 동여 매면 일할 때는 치마단이 끌리지 않아 편리했고 외출할 때에는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할 수 있어 좋았다고 한다. 양자는 소재와 형태, 착용자에 따라 서로 구별된다.

먼저 각띠는 일제시대 때 부유한 집안의 여자들이 치마 위에 두른 것으로 주로 젊은 여자들에게 장식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당시 여자들이 각띠를 매고 외출하면 매우 멋있었다고 한다. 각띠는 나비가 5cm 정도이며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 등의 공단이나 비단으로 뽀뽀하게 만들어 앞 중앙의 좌우에 달려있는 버클을 이용하여 맞여미게 되어 있다.

각띠라는 용어는 경상남도의 진주, 사천에서도 사용되었다. 진주, 사천지역의 각띠는 돌잔치때 두루마기나 전복 위에 두른 빨강색 비단 형겅에 수를 놓은 돌띠와 혼례때 신랑이 단령 위에 두른 角帶를 말하는 것으로¹⁵⁾ 외나로도지역의 각띠와 명칭은 같으나 형태는 다르다. 다만 뽀뽀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다음으로 혈투는 일반 서민층이나 나이든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으며, 주로 무명으로 만들었으나 빨강색, 노랑색, 파랑색 등의 비단으로도 만들었다. 길이는 허리를 한 번 두르고 앞에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길게 하여 배가 부르면 풀고 배가 고프거나 노동할 때는 단단히 묶었다고 한다.

혈투는 지역에 따라 강원도 삼척에서는 허르투, 경상북도 울진에서는 혈띠, 경상남도 울산과 경상북도 경주, 대구에서는 혈끈, 충청남도 공주와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쾌리, 쾌리띠라고도 한다¹⁶⁾. 특히 경기도 안성에서는 허리띠를 괴아리띠 또는 괴리띠라고 하는데 이는 광목이나 옥양목으로 만든 폭 5cm 정도의 끈으로서¹⁷⁾ 그 양식이 외나로도지역의 혈투와 비슷하다.

한편, 이 지역에서 착용된 남녀의 회갑복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평상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진 1]은 김창옥 할아버지의 회갑기념 사진이다.

회갑복으로 할아버지는 바지,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조끼와 마고자를 입었으며 할머니는 치마와 저고리를 입었는데 평상복보다 옷감이 고급스럽고 화려하다. 다른 지역의 회갑복을 보면 할아버지는 마고자 위에 두루마기를 입었고 집안에 따라 도포를 입고 갓을 쓰기도 했으며 할머니는 저고리 위에 마고자를 입거나 집안에 따라서 원삼에 족두리를 쓰기도 했는데¹⁸⁾ 이 지역에서는 다소 약식화된 차림을 하였다.



[사진 1] 1970년대 회갑복

2) 두의(頭衣)

남자들의 머리모양은 상투머리에 탕건과 갓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일제시대에는 머리를 깎고 중절모나 털모자를 썼다. 남자 아이들은 머리를 땅고 흑색 갑사로 만든 땃기를 드리웠다.

여자의 머리모양은 기혼녀는 없은머리와 쪽진머리를 했고 미혼녀는 가랑머리를 했다.

없은머리는 이 지역 여인들이 1920년대까지 평상시에 했던 머리모양으로서 '또발이머리', '현투머리'라고도 한다. 제보자 중 유일하게 박달엽 할머니만 결혼할 때(1925년) 없은머리를 했던 경험이 있고 그 외의 제보자들은 과거에 모두 쪽진머리를 했으며 제보자들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평소에 늘 없은머리 하신 것을 보고 자랐다고 한다. 방법은 먼저 머리를 뒤에서 두 가닥으로 나누어 서로 교차시켜 각각 땅아 끝부분을 검은색 땃기로 묶은 다음 이것을 앞으로 등글게 돌려 엮어 상투가 자신의 왼쪽에 오도록 하여 비녀를 꽂았다. 비녀는 용도에 따라 송정비녀와 은비녀, 꽃비녀 등을 꽂았는데 송정비녀는 '갈고리비녀'라고도 했으며 앞에 꽂은 것이고, 은비녀와 꽃비녀는 상투에 꽂은 것으로 꼭지가 달려 있고 앞에서 뒤로 꽂았다.

쪽진머리는 없은머리를 하지 않으면서 하게 되었는데 방법은 머리를 뒤에서 한 가닥으로 땅아 뒷통수에서 등글게 서린 다음 비녀를 꽂았다. 비녀는 재료에 따라 금비녀, 은비녀, 옥비녀, 사기비녀(일명 사그비녀), 목비녀(일명 목간나무비녀), 명갑나무비녀 등을 꽂았다. 이 중 사기비녀는 누르스럼한

색상이 옥비녀와 비슷하여 즐겨 사용된 것이고 목간나무비녀와 명갑나무비녀는 비녀를 살 수 없었던 가난한 여인들이 나뭇가지를 꺾어 비녀로 사용했던 것이다.

가랑머리는 원래 여자 아이들이 두 가닥으로 뿔아 늘린 머리모양으로서 일명 양태머리, 쌍태머리, 가락머리라고도 한다¹⁹⁾.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양쪽 귀 위의 귀밑머리를 뿔아 뒤에서 모아 다시 뿔아 내려 끝에 뿔기를 드리운 머리모양을 가랑머리라고 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머리모양은 뿔은머리²⁰⁾, 외태머리²¹⁾라고도 한다. 뿔기는 주로 붉은색 갑사로 만들었으며 뿔기 끝에 금박을 놓아 장식하기도 했다. 처녀들이 했던 붉은색 뿔기를 제비부리뿔기라고 하는데²²⁾ 이를 이 지역에서는 '제비초리'라고 했다.

3) 족의(足衣)

평상시에 일반 서민들은 스스로 짚신[짚세기]을 만들어 신었고 부유한 사람들은 가죽으로 만든 갓신을 신었으며 1930년대 후반부터 고무신을 신기 시작했다. 이 지역의 여자들은 삼으로 만든 미투리[삼신]는 잘 신지 않았다고 한다.

짚신은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사계절 신은 것으로 주로 짚으로 만들었으나 짚에다 나무껍질을 섞어 만들기도 했으며, 남녀가 같은 형태의 짚신을 신었다. 아이들은 짚게다, 즉 짚으로 게다를 만들어 신었는데 짚게다는 오늘날의 슬리퍼와 비슷한 것으로서 뒤축이 없어 비가 오면 흙탕물이 어깨까지 튀었다고 한다.

갓신은 가죽신의 준말이며²³⁾ 이 지역에서는 '갈편(일명 깔신, 깔정)'이라고 했다. 갈편은 고무신처럼 생겼으며 갈편의 밑바닥에 징을 박은 것을 징신이라고 했다.

비가 올 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짚신을 신었고 부유한 사람들은 갓신과 나막신을 신었는데 나막신은 나무로 만든 것으로 노인들에게 애용되었다고 한다. 갓신 가운데 가죽을 기름에 절여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 것을 진신이라고 하는데²⁴⁾ 이 지역의 사람들은 진신을 신은 경험이 없으며 인근 전주지역의 경우에도 서민들은 진신을 신지 못하

였다고 한다²⁵⁾.

또한 꽃신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짚세기를 곱게 삼아 빨강색, 파랑색 등으로 물들인 것도 꽃신이라 하였고, 고무신에 꽃을 그려 넣은 것도 꽃신이라 하였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여자가 신었던 갓신에 장식을 가하여 화려하게 꾸민 것을 꽃신이라 하기도 하고²⁶⁾ 비단 천으로 만든 혜(鞋)를 꽃신이라 하기도 하고 있어²⁷⁾ 꽃신에 대한 개념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꽃신은 소재와 상관없이 화려하게 장식을 가한 신발을 모두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2. 길쌈하기

1) 길쌈의 종류

이 지역에서는 주로 무명, 모시, 삼베를 길쌈했고 명주는 가끔씩 했으며, 해방 이후에는 길쌈도 누에치기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지역 여인들은 대부분 길쌈을 할 수 있었으며 직접 길쌈해서 가족들의 옷을 지어 주거나 판매하기도 했다.

이 지역의 전통적인 의료에는 무명, 모시, 삼베, 명주 등이 있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는 합성섬유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의료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는데 일제시대 때 사용되었던 옷감을 계절별로 살펴보면 여름에는 외울베²⁸⁾, 모시, 삼베 등이 사용되었고, 가을에는 숙고사, 갑사, 고사, 나야가라, 인조 등이 사용되었고, 봄, 가을에는 옥양목과 당목 등이 사용되었으며, 겨울에는 무명, 명주 등이 사용되었다.

명주는 주로 남자들의 바지, 저고리를 만드는데 사용되었으나 의료로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한산모시는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었으며 두루마기를 만드는데는 8升 정도의 좋은 것이 사용되었다. 당목과 옥양목은 드레스셔츠, 조끼, 중적삼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었으며 당목은 원래 누런색이므로 삶아서 하얗게 해서 사용했다. 일제시대 때는 무명을 검정색으로 염색하여 학생복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

한편, 이 지역의 염색문화를 보면 천연염색은 치자염색, 쌀등겨염색 정도였고 대부분 화학염색이

었다. 노랑색은 치자나 쌀등겨 등으로 염색했는데 쌀등겨의 경우 쌀등겨 속에 천을 담가 두면 자연히 노랗게 물이 들었다고 한다. 빨강색, 파랑색, 노랑색, 분홍색, 밤색, 검정색 등 선명한 색상은 화학물감인 염료가루로 염색했는데 염료가루를 배봉지에 넣어 물 속에서 살랑살랑 흔들어 염액을 만든 다음 염액 속에 옷감을 넣고 살살 주무르면 염색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흙, 돌, 바위의 이끼류 등도 염료로 이용되었다고 전해지지만 정확한 염색법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2) 베틀의 구조와 부위별 명칭

이 지역의 베틀 구조는 다른 지역의 것과 같았으며 단지 부위별 명칭에 있어서 고유의 방언을 사용하고 있었다. 베틀의 구조와 부위별 명칭은 [그림 2]와 같고 부위별 명칭에 대한 외나로도지역과 전라도 내륙지역의 방언을 비교·정리하면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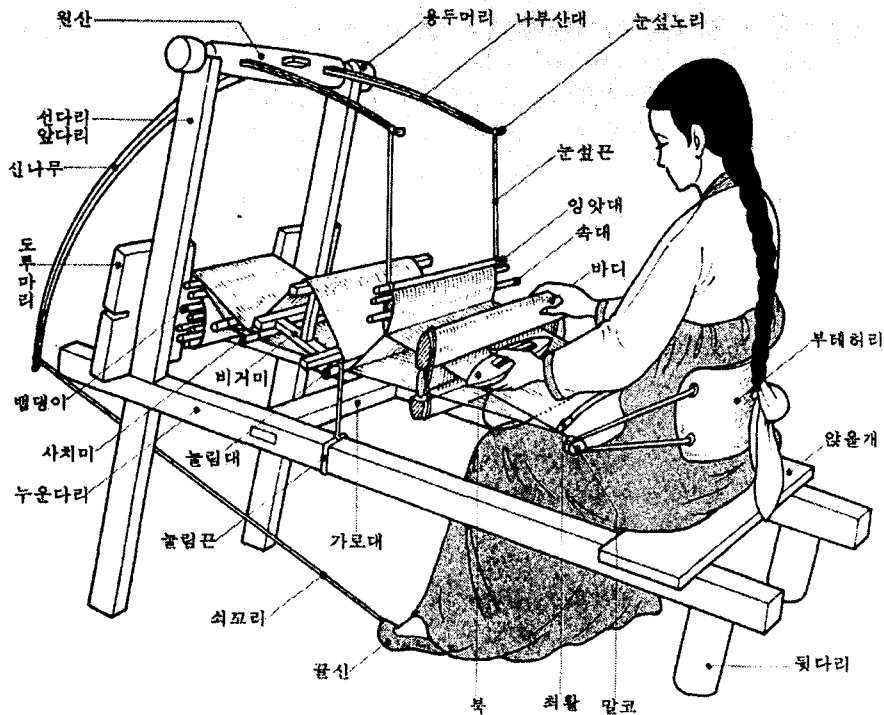
<표 2>에 의하면 베틀의 부위별 명칭에 대한 방언은 외나로도외 전라도 내륙지역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외나로도의 방언은 전라남도 나주의 방언과 가장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잉앗대, 바디, 분데, 말코, 최활, 북, 끝신, 가로대, 뱀땡이 도투마리, 앉을개, 뒷다리, 선다리, 앞다리 등의 방언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베틀의 부위별 명칭에 대한 방언은 도서지역과 전라도 내륙지역간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3. 의생활 관리

1) 푸새

푸새는 풀을 먹이는 과정을 말하며 이 지역에서는 푸답이라고 한다. 푸새는 주로 모시와 무명에 했으며 명주에는 하지 않았다. 풀감으로는 쌀풀, 밥풀, 밀가루풀, 풀가사리풀 등이 사용되었는데 바



[그림 2] 베틀의 구조와 부위별 명칭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9, p.604)

<표 2> 베틀의 부위별 명칭에 대한 외나로도지역과 전라도 내륙지역의 방언 비교²⁹⁾

지역 표준어	전북 (봉동)	전남 (영광)	전남 (보성)	전남 (나주)	외나로도	지역 표준어	전북 (봉동)	전남 (영광)	전남 (보성)	전남 (나주)	외나로도
원산	-	-	-	원삼,온삼, 용두대	용두	꼴신, 베틀신	꼬실키신	꼬식신	-	밭	꼴신, 꼬슬쿠
용두머리	용도머리	용두 머리	원삼	-	용모름	가로대	가루장	가랫세장	가릿장	가래장,가로대, 가릿장,밭걸이	가래장
눈썹대, 나부산대	눈썹누리대	-	가부손	원삼대,용두머리, 온삼대,나구선대	누그대	눌림대	누리기대	눌름대	눈썹대	눌림대,눌림끈	-
눈썹노리	눈썹	-	-	원삼대,눈썹놀이, 나구선대	-	비경이, 비거리	빙어리	비거리	비어리	비경이	비걸이
눈썹끈	눈썹끈	용두끈	눈썹끈	원삼대줄,눈썹끈, 사침끈,나선대실	누그대끈	사침대, 사치미	사침	사침	사침	도투마리끈,뱀뎡 이,뒷사침,비거리	-
잉앗대	잉앗대	잉애대	잉앗대	잉여대,잉아대, 사침대	잉애	뱀뎡이	뱀대기배방	뱀대	뱃대	뱃대,뱃대,뱀대	뱀대
바디	바디	보디	보두	보디집,바디, 보두집	보디	도투마리	도토타리	도트마리	도트마리	도투마리	도투마리
부티, 부테허리	부테	분테	화랑개	분테,부티, 허리띠	분테	앉을개, 앉을개	앉질개	앉을대	앙질대	가래판,앉을개, 안글개	앉을개
말코	말코	몰코	몰코	몰코,말코, 밀코,몰개	몰개	뒗다리	-	-	-	뒤베틀다리, 베틀다리,뒗다리	뒗다리
취활	취(활)밭	첫밭	첫등	첫밭,첫밭,보두	체밭	누운다리	-	-	-	베틀,누운다리, 원베틀대	-
북	-	-	-	북,북바늘	북	선다리, 앞다리	-	-	-	앞베틀다리,베틀 대,기등(앞다리)	세운다리, 베틀다리

- : 언급이 없는 경우

다와 접해 있다는 지역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풀가사리를 이용한 푸새법이 사용되어 특징적이다.

① 쌀풀

쌀풀은 쌀을 멧들에 곱게 갈아 아주 되게 쏘는 것이다.

② 밥풀

밥풀은 밥을 무명 또는 삼베 주머니[차대기]에 넣어 물에 담가 주무르면 뜨물같은 물이 나오는데 이것을 쏘는 것이다. 밥풀로 푸새하면 제일 꼬들꼬들했다고 한다.

③ 밀가루풀

밀가루풀은 밀을 멧들에 곱게 갈아 쏘는 것으로 이것으로 푸새하면 미끄럽고 땀이 났을 때 옷이 몸에 붙고 풀기운이 오래 가지 못하여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④ 풀가사리풀

풀가사리[풀가시리]³⁰⁾는 쌀이 귀할 때 사용되던 풀감으로서 주로 무명에 사용되었다. 건조시킨 풀가사리를 한 줌 때어 맑은 물[민물]에 깨끗이 씻어 햇볕에 널어 바래고, 다시 맑은 물에 씻어서 널어 바래다. 바래는 작업을 하루에 자주 반복하여 3~4일 정도 계속하면 검붉은 풀가사리가 하얗게 되는데 이것을 물과 함께 끓이면 미끈미끈한 풀이 된다. 풀가사리풀을 쌀풀에 조금 넣어서 푸새하면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고 빨리 광택이 나서 좋았다고 한다. 풀가사리풀은 제주도지역에서도 사용되었다³¹⁾.

이상에서 언급한 풀감으로 푸새한 다음 천을 개어 발로 자근자근 밟고 탈탈 털어서 입으로 물을 뱉어 가며 솥불을 일구어 다림질하면 옷감에 광택이 반질반질하게 났다고 한다.

2) 세탁

홀옷이나 겹옷은 그냥 세탁하고 솜옷은 뜯어서 옷감과 솜을 분리한 다음 옷감을 세탁하고 푸세해서 다시 지어 입었다고 한다. 세제로는 비누가 보편화되기 이전에 주로 잿물과 양잿물이 사용되었다.

① 잿물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만들어 쓰던 세제이다. 잿물은 발벼[서석], 콩대, 팥대 등을 태운 재를 시루에 얹혀 물을 부어 내린 것이다. 잿물에 빨래감을 넣고 삶으면 때가 빠지는데 주로 무명이나 삼베에 사용되었다.

② 양잿물

양잿물은 1920년대 일제시대에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³²⁾ 덩어리를 따듯한 물에 녹여서 이 물로 빨래하면 세탁효과가 매우 좋았다고 한다. 잿물로만 빨래를 삶으면 때가 깨끗하게 빠지지 않았으므로 양잿물을 사서 조금씩 섞어 삶았다고 한다.

3) 보관

특별한 보관방법은 없었고 다만 나프탈렌이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옷에 좀 친다고 나프탈렌을 베에 싸서 옷 사이에 넣었다고 한다.

IV. 의례복

1. 출생복

생활의 궁핍으로 백일옷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여유있는 집안의 경우 돌복으로 남자아이는 풍차바지에 저고리를 입었고 여자아이는 치마에 저고리를 입었다.

부유한 집안에서는 무명으로 기저귀를 만들었으나 대개는 적삼 소매를 잘라서 기저귀 대용으로 사용했으며, 아이를 업는 포대기는 검정색 무명 석자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2. 혼례복

이 지역에서는 혼례 때 사모관대하는 풍습이 10여 년 전까지 행해졌으며 현재 사모관대와 단령이 동네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다. 몇 년 전에는 학교에서 전통혼례를 하기도 했다.

1) 남자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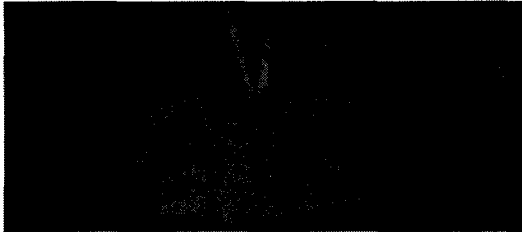
남자들은 혼례 때 원래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를 입은 다음에 사모관대를 하고 단령을 입었다. 이 지역에서는 사모관대와 단령을 '조복'이라고 하였다. 단령은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직접 만들기도 했으나 대개는 마을에 공용으로 비치되어 있는 것을 빌리거나 친척집 또는 사진관에서 빌려 입었다. 해방이후에도 이처럼 사모관대하고 단령 입는 풍속이 여전히 행해졌으나 단령 안에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대신 양복을 입기도 하고 사모 대신 남바위를 쓰기도 하는 등 다소 간소화되었다.

그런데 혼례복으로 사모관대하고 단령을 입는 풍속 외에 보다 약식화된 혼례복도 착용되었다. 즉 혼례 때 명주로 만든 바지, 저고리를 기본으로 입고 그 위에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남바위를 쓰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다. 간혹 부유한 집안에서는 옥색 두루마기 위에 파랑색 창옷을 덧입고 머리에 사모를 쓰기도 했다고 한다. 이때 창옷은 두루마기를 말하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서 두루마기를 '창옷'이라고도 하는데³³⁾ 제주도지역의 경우 홀으로 만든 두루마기를 창옷이라고 했다³⁴⁾.

바지와 저고리의 배색을 보면 저고리는 주로 흰색이었고 바지는 흰색, 옥색, 감색이었으며, 두루마기의 색상 역시 흰색, 옥색, 감색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사진 2]와 [사진 3]은 김달심 할머니의 아들이 장가갈 때 마련했던 1960년대의 저고리와 두루마기이다. 저고리는 걸감이 능직의 옥색 함성섬유이고 안감이 백색 시야이며 걸감과 안감 사이에 망사심이 들어 있다. 동정은 마분지를 시야로 싸서 달았다. 두루마기는 걸감이 백색 옥양목³⁵⁾이고 안감이 백색 다후다이며 걸섶과 안섶의 선단 및 밑단이 세발뜨기로 고정되어 있다. 모두 재봉틀로 만들었으며 바느질이 거칠고 성글다. [그림 3]과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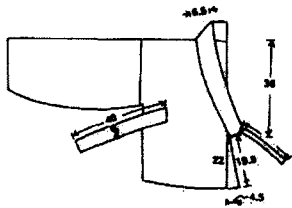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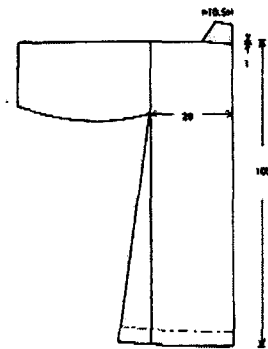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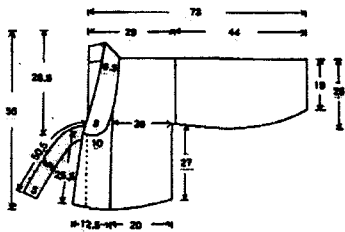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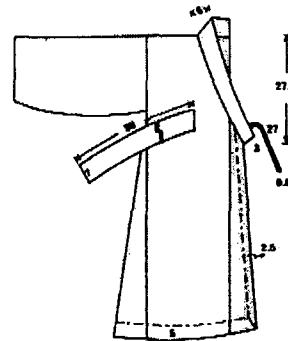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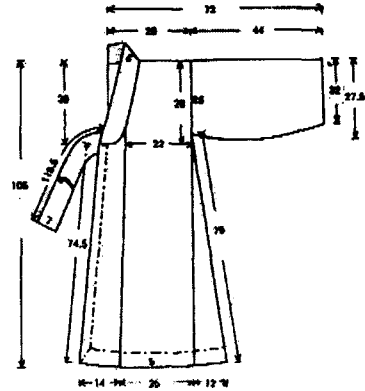
는 저고리와 두루마기의 실측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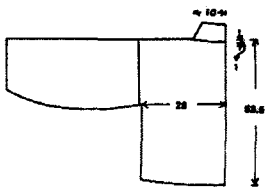
[사진 2] 1960년대 남자 저고리



[사진 3] 1960년대 남자 두루마기



[그림 4] 1960년대 남자 두루마기 실측도



[그림 3] 1960년대 남자 저고리 실측도

2) 여자옷

이 지역의 여자들은 혼례 때 원래 치마, 저고리를 입고 원삼을 입었으며 부유한 집안에서는 옷치마³⁶⁾라고 하는 치마를 하나 더 입었다. 오늘날 치마는 겹치마가 일반적인데 1930~1950년에는 모두 홑치마였으며 혼인 때는 홑치마 두 개를 겹쳐 입었

다³⁷⁾. 원삼은 남자의 단령과 마찬가지로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직접 만들기도 했으나 대개 마을에 공용으로 비치되어 있는 것을 빌리거나 친척집 또는 사진관에서 빌려 입었다.

머리에는 대접 크기만한 검정색의 족두리를 썼으며 족두리에는 꽃모양의 장식품을 많이 달았다. 부유한 집안에서는 금비녀를 꽂고 아얌드림을 했는데 이 지역에서는 아얌드림을 ‘금봉채’라고 했다. 혼례때 신부는 신랑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 흰색 면으로 만든 한삼으로 얼굴을 가렸으며, 예를 맞으러 나올 때 신부가 노랑색 저고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신발은 흰색 고무신이나 가죽으로 만든 갓신을 신기도 하고 왕골을 몰들여서 곱게 삼아 신기도 했는데 이를 ‘딸롱베기’라고 했다. 부유한 집안에서는 고무신에 꽃을 그려 넣은 꽃신을 신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는 이처럼 족두리를 쓰고 원삼을 입는 풍속이 여전히 행해지는 가운데 다소 간소화되어 원삼을 생략하고 명주로 만든 치마, 저고리만 입고 한삼을 늘어뜨리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다. 치마와 저고리의 배색을 보면 빨강색 치마에 노랑색 저고리나 연두색 저고리가 일반적이었고, 이 외에 감색 치마에 노랑색 저고리나 빨강색 저고리, 남색 치마에 남색 저고리나 노랑색 저고리, 빨강색 치마에 파랑색 저고리, 분홍색 치마에 분홍색 저고리 등으로 다양했다. 저고리의 깃, 끝동, 고름에는 다른 색이 사용되었는데 끝동에는 주로 남색이 사용되었다.

속옷은 결혼생활이 시원하라는 의미에서 모시로 만들었으며 부유한 집안에서는 고쟁이, 풍차고쟁이, 단속곳을 모두 갖추어 입었고 가난한 집안에서는 고쟁이 하나만 입고 바로 치마를 입었다. 해방 이후에는 주로 인조로 만든 흰색 속치마를 입었으며 속치마에 조끼허리가 달려 있었으므로 속저고리는 입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해방 이후 이 지역의 혼례풍속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전통 혼례복을 입고 전통 혼례 절차에 따라 식을 행하였는데 남자는 단령을 입고 남바위를 썼으며 여자는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썼다. 식을 마친 다음에는 사진관에 가서 남자

는 양복을 입고 여자는 치마, 저고리에 면사포를 쓰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사진 4]는 김달심 할머니의 아들 내외가 전통 혼례복을 입은 모습이고, [사진 5]는 서구식 혼례복을 입은 모습이다.



[사진 4] 1960년대 전통 혼례복



[사진 5] 1960년대 서구식 혼례복

3. 상례복

1) 수의(壽衣)

옛날에는 수의의 재료로 명주, 무명, 삼베 등이 사용되었으며 모시로 수의를 만들면 자식들의 머리가 하얗게 된다고 해서 모시는 사용되지 않았다.

수의의 재료로 특히 많이 사용된 것은 삼베인데 그 이유는 삼베는 물이 잘 빠지고 땀이 흡수되지 않고 붙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명주는 시신의 땀에 감겨 잘 삭지 않아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으며 무명은 잘 삭는다고 하여 현재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수의에 사용되는 재질은 다양하였다. 즉 버선과 속옷은 삼베로 만들고 겉옷은 명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속옷과 겉옷을 모두 삼베로 만들고 명전은 명주나 비단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으며, 또 잘 썩는다고 하여 모두 무명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근래에는 대부분 윤달에 수의를 사서 입는다고 하며 제보자 중 홍명엽 할머니만이 수의를 준비해 두셨는데 10여 년 전에 따님이 지어 주셨다고 한다. 수의의 구성을 보면 삼베홀이불, 명주숨베개, 명주숨턱받침, 명주손싸개, 명주면사포, 명주명정, 삼베홀속저고리, 삼베홀속바지, 백색 명주겹속바지, 백색 명주겹저고리, 백색 명주겹치마, 옥양목버선 등과 함께 평소애 할머니께서 입으셨던 옥색 속바지(여분으로 분홍색 속바지도 준비되어 있었다), 흰색 속치마, 연분홍색 치마와 저고리, 붉은색 양단두루마기 등이 준비되어 있었다. 두루마기 대신 원삼을 입는 것이 예이나 지금은 간소화되어 두루마기를 많이 입는다고 한다.

한편, 형편이 어려워 수의를 마련하지 못하는 집에서는 시신을 닦은 후 한지를 붓대 감듯이 감아서 수의를 대신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주로 충청이남지역에서 보인다.

2) 상복(喪服)

상주는 저고리와 무릎정도 길이의 바지를 입고 삼베로 만든 길이가 짧은 제복을 입었으며, 머리에는 굴건을 쓰고 굴건 위에 짚으로 만든 수질을 두르고 허리에는 짚으로 만든 요질을 들렀다. 이 지

역에서는 굴건을 '두건', 수질을 '태관'이라고 표현했는데 수질은 지역에 따라 태두리, 탕이³⁸⁾라고도 한다. 맞상주의 경우 수질의 앞뒤로 뿔뿔한 삼베를 끼워 넣어 맞상주임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다. 또한 대개 제복은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를 입은 다음에 입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 지역에서는 두루마기를 생략하고 바지, 저고리 위에 바로 제복을 입는 것이 독특하다.

사위는 중단을 입고 굴건만 쓰고 수질은 하지 않았다. 중단은 홀으로 만든 소매가 넓은 두루마기를 말하는 것으로³⁹⁾ 제복에 의하면 이 지역의 중단 역시 이러한 형태였다.

여자의 경우 치마와 저고리만 입었는데 치마는 반드시 삼베로 만든 것을 입었고 저고리는 아무 것이나 입었다. 머리에는 수질을, 허리에는 요질을 들렀는데 모두 짚으로 만들었으며 짚신을 신었다. 충청도 지역에서는 여자들이 상복으로 치마, 저고리 위에 자신들의 두루마기나 남자들의 두루마기를 입기도 했다⁴⁰⁾.

한편, 이 지역에서는 길흉에 따라 새끼를 꼬는 방향을 달리 했다고 한다. 성스러운 용도, 즉 아이를 낳고 금줄을 칠 때, 상례 때 송장을 묶을 때, 그리고 수질을 만들 때에는 새끼를 왼쪽으로 꼬고[왼새끼], 일상적인 용도에는 새끼를 오른쪽으로 꼬았다고 한다[오른새끼]. 새끼를 꼬는 방향과 관련하여 경기도 지역에서는 요질을 만들 때 父喪에는 왼쪽으로 꼬고 母喪에는 오른쪽으로 꼬는 풍습이 있었다⁴¹⁾.

V. 결 언

이상으로 외나로도지역의 의생활에 대해 일반 의생활과 의례복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의생활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외나로도 지역은 지리풍토적으로 어업과 농업에 적합한 지역이므로 노동하기에 적합한 의복과 실

용적인 의료가 발달했다. 남녀 모두 무명으로 만든 바지, 저고리와 치마, 저고리를 기본으로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짚신을 신어 평상복과 노동복을 겸했으며, 속옷은 모두 갖추어 입지않고 고쟁이 하나 정도만 입어 활동의 편의를 도모했다. 일제시대에는 평상복겸 노동복으로 남자는 서양복을, 여자는 몸뻬를 입고 고무신을 신었다.

2. 의례복은 내륙지역에 비해 간소화되어 나타났다. 출생복과 돌복은 생활의 궁핍으로 따로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혼례복은 남자는 사모관 대하고 두루마기, 단령을 입었으나 해방이후에 간소화되어 단령 안에 양복을 입거나 사모 대신 남바위를 썼으며, 이후 더욱 간소화되어 겉옷으로 두루마기를 입었다. 여자는 치마, 저고리,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쓰고 한삼으로 얼굴을 가렸으나 해방이후에 간소화되어 치마, 저고리만 입고 한삼을 늘어뜨렸다. 상례복은 壽衣에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모시는 사용되지 않고 명주, 무명, 삼베 등이 사용되었으며, 형편상 수의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신에 한지를 봉대감듯이 감아 수의를 대신했다. 喪服은 상주는 굴건, 제복을 입고 수질과 요질을 들렀고 사위는 두루마기를 입고 두건을 썼으며, 여자는 치마, 저고리를 입고 짚신을 신었다.

3. 복식변화의 분기점은 일제시대인 1920년대와 해방이후인 1950년대이다. 일제시대에는 전통복식과 서구식 복식이 통용되는 과도기 복식기이며 해방이후 1950년대는 서구식 복식이 정착되는 시기이다. 일제시대의 복식변화를 보면 남자는 하얗게 삶은 당목과 옥양목으로 만든 드레스셔츠와 검정색 무명으로 만든 양복을 입었고, 여자는 고유의 치마를 변형한 몸뻬를 입다가 점차 서양 바지형태의 몸뻬를 입었다. 頭衣는 남자의 경우 머리를 깎고 여자의 경우 없은머리 대신 쪽진머리를 했다. 足衣는 짚신에서 고무신으로, 세제는 잿물에서 양젓물로, 염료는 치자, 쌀등겨, 흙, 돌, 바위의 이끼류 등의 천연염료에서 화학염료로 변화되었다.

4. 계층간의 복식분화현상은 사용된 옷감과 복식소품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부유한 사람들은 명주, 양단, 8升정도의 고운 모시로 만든 의복을 입고 각띠, 갓신, 금비녀, 은비녀, 옥비녀, 아얌드림 등을

갖추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무명으로 만든 의복을 입고 헐뚜, 짚신, 사기비녀, 목비녀, 명갑나무비녀 등을 갖추었다.

5. 복식용어에 있어서 고유의 방언이 사용되었는데 내륙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고리를 동방우, 속저고리를 마고자, 풀치마를 가닥치마, 두루마기를 두루막, 허리띠를 헐뚜와 각띠, 짚신을 짚세기, 가죽신을 갓신, 없은머리를 또발이머리, 귀밑머리를 가랑머리, 제비부리댕기를 제비초리, 아얌드림을 금봉채, 굴건을 두건, 수질을 태관, 무명을 미영, 푸새를 푸담, 저고리의 길을 질, 바지의 마루폭을 온폭, 큰사폭을 큰다리, 작은사폭을 작은다리라고 했다. 이 중 동방우는 전라남도의 동방애, 돛방애, 돛방우라는 방언과 유사하며, 온폭, 큰다리, 작은다리는 강원도에서도 사용되었다. 각띠는 경상남도의 들띠와 角帶를 일컫는 용어와 동일하며, 헐뚜는 강원도의 허르뚜, 경상북도의 헐띠와 유사하다.

6. 길쌈은 자가소비와 판매를 겸한 여인들의 주요한 생계수단이었다. 노동지역이라는 특성상 실용적인 재질이 선호되어 무명을 사계절 모두 길쌈했으며, 이외에 모시와 삼베는 여름에, 명주는 겨울에 길쌈했으나 그다지 많이 하지는 않았다. 배틀의 부위별 명칭에 대한 방언은 전라도 내륙, 특히 전라남도 나주의 방언과 가장 유사한데 잉앗대, 바디, 분테, 말코, 최활, 북, 끝신, 가로대, 뺨뎡이 도투마리, 앞을개, 뒷다리, 선다리, 앞다리 등은 거의 동일하다.

7. 도서지역이라는 특성상 내륙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풀가사리를 이용한 푸새법이 사용되어 특징적이다. 풀가사리는 쌀이 귀할 때 사용되던 풀감으로 주로 무명에 사용되었으며, 풀가사리 외에 쌀풀, 밥풀, 밀가루풀 등도 사용되었다. 푸새는 주로 모시와 무명에 했으며 명주에는 하지 않았다.

참고문헌

- 1) 국제신문, 2001년 7월 31일 보도내용.
- 2)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第十七冊) 衣生活篇》, 1986.
- 3) 지춘상 외 19인, 《남도민속학개설》, 태학사, 1998.
- 4) 하반마을 주민들은 어업과 농업을 주생활기반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친·인척으로 구성된 혈연관계이며, 대표적인 성씨로는 신씨, 송씨, 유씨, 정씨 등이 있다. 이전에는 80세대 정도가 살았으나 4년 전에 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현재 38세대 정도가 살고 있는데 대부분 60세 이상의 高齢者들이다.
- 5) 大阪外國語大學 朝鮮語研究室 編, 《朝鮮語大辭典(上卷)》, 角川書店, 1986, p.746.
崔鶴根, 《增補 韓國方言辭典》, 明文堂, 1990, p.1022.
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찬, 《조선말사전(1)》, 연변인민출판사, 1992, p.820.
- 6) 서울 亞細亞文化社 刊行, 《朝鮮語辭典》, 同文社, 1975, p.245.
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찬, 《조선말사전(1)》, 연변인민출판사, 1992, p.813.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찬, 《조선말대사전(1)》, 여강출판사, 1992, p.854.
박경휘, 《중국 조선족의 의식주 생활풍습》, 집문당, 1994, p.40.
- 7)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실편, 《조선의 풍습》, 학민사, 1993, p.60.
선희창, 《조선의 민속》, 민족문화, 1995, pp.41~42.
이훈중, 《민족생활어사전》, 한길사, 1992, p.45.
- 8) 權瑛淑, “昌寧地域의 衣生活 -일반 의생활과 실증적 고찰을 중심으로-”,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韓國文化研究 7, 1995, pp.305~306.
- 9) 남자들의 노동복으로 등거리와 잠방이[잠뱅이]가 대표적이다. 등거리는 깃, 섶, 동정이 없고 웃고름 대신 작은 끈이나 단추를 달아서 앞을 여미게 하였고, 잠방이는 바지와 비슷하나 길이가 정강이까지 오며 통이 좁았다. 등거리와 잠방이는 주로 여름철 노동복이었으나 봄, 가을에도 입었다. 가난한 농민들은 잠방이를 노동복으로 뿐만 아니라 평상복으로도 입었으며 홀잠방이 차림으로 겨울을 나기가 일쑤였다(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실편, 《조선의 풍습》, 학민사, 1993, p.60 / 선희창, 《조선의 민속》, 민족문화, 1995, pp.41~42 참조)
- 10)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앞글, p.257.
- 11) 崔鶴根, 앞글, p.1055.
- 12)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앞글, p.114.
- 13) 위글, p.17.
- 14) 박경휘, 앞글, p.17.
- 15)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앞글, p.310, 322.
- 16) 崔鶴根, 앞글, p.1023~1024, 1062.
- 17)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앞글, p.16.
- 18) 위글, p.22, 63, 217.
- 19) 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찬, 앞글, p.11.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찬, 앞글, p.14.
大阪外國語大學 朝鮮語研究室 編, 앞글, p.16.
- 20) 유희경·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敎文社, 1998, p.251.
- 21) 박경휘, 앞글, p.55.
- 22) 유희경·김문자, 앞글, p.256.
- 23) 大阪外國語大學 朝鮮語研究室 編, 앞글, p.92.
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찬, 앞글, p.92.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찬, 앞글, p.112.
박경휘, 앞글, p.51.
- 24)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실 편, 앞글, p.78.
연변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찬, 《조선말사전(2)》, 연변인민출판사, 1992, p.1280.
- 25)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앞글, p.243.
- 26) 선희창, 앞글, p.66.
- 27) 박경휘, 앞글, p.51.
- 28) 외올베는 무명보다 가는 베를 말한다(김공례, 김달심, 김명례 제보).
- 29)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9》, p.604.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앞글, p.48, pp.262~263.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韓國民俗大觀 2 -日常生活·衣生活-》, pp.362~365.
- 30) 풀가사리류는 불등가사리(G. furcata)가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종류이고, 그 밖에 애기풀가사리(G. complanata), 풀가사리 등이 있으며, 모두 식용하고 질이 우수한 호료(糊料)로도 이용된다. 풀가사리는 적황색을 띤 해초로서 한국의 모든 연안, 일본, 아메리카, 태평양 연안 등지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의 생육시기는 5월 하순부터 9월 상순까지이다.
- 31)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앞글, p.390.
- 32) 위글, p.389.
- 33) 崔鶴根, 앞글, p.1020.
- 34)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앞글, p.370.
- 35) 김달심할머니는 9升 무명이라고 했다.
- 36) 빨강색 걸치마에 빨강색 옷치마 또는 옥색 걸치마에 감색 옷치마를 입었다.
- 37)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앞글, p.98.
- 38) 위글, p.61, 245.
- 39) 위글, p.373 / 이훈중, 앞글, p.40.
- 40) 위글, p.163, 190.
- 41) 위글, p.20.